

주요 투자은행의 세계경제 및 주요국 성장률 전망 (2021.8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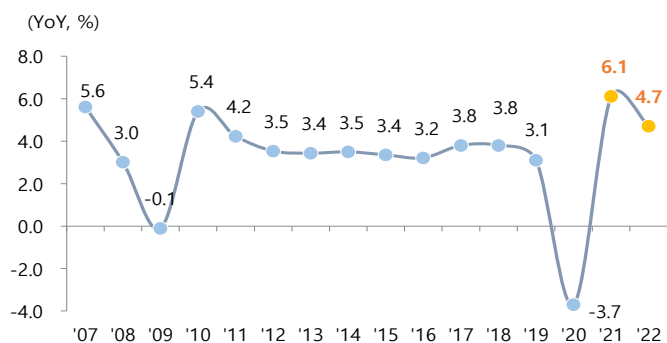
홍서희 | 책임연구원(3705-6153)

- **세계(-0.1%p ↓):** 델타변이 확산, 중국 경제둔화 우려 등이 글로벌 수요를 약화시키는 요인이거나(Citi), 서비스업 회복 지속 등은 경기하강을 억제(JPM)
 - **미국(-0.2%p ↓):** 연준의 신중한 정책 전환과 함께 하반기 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둔화 전망되나 서비스 정상화, 재정부양 지속 등으로 잠재수준을 상회하는 성장세 지속(Nomura)
 - 7월 경제지표 부진(소매판매 -1.1%, 내구재수주 -0.1%, mom)은 대내수요 둔화를 시사(Barclays).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약화는 리스크 요인(미시건대 소비자신뢰지수 7월 81.2 → 8월 70.2)
 - **유로존(-):** 서비스업 주도로 3분기 성장률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9.9%, qoq saar)되며 제조업은 공급 차질이 점차 완화되면서 정상화 지속(Barclays)
 - 델타 변이 확산이 상대적으로 억제되고 있으며 입원율도 낮은 상황, 제한조치 도입 가능성 低
 - **중국(-0.2%p ↓):** 바이러스 우려에 따른 가계지출 약화, 규제 강화(부동산, 인프라) 등으로 모멘텀 둔화(lose steam). 중국 경기둔화 지속시 미국 외 글로벌 경제에 하방리스크가 확대될 소지(Citi)
 - **일본(-0.1%p ↓):** 백신접종 가속에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소비회복 지연과 제조업 생산차질 등으로 3분기 마이너스 성장(-0.4%, qoq saar) 우려(BoA)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기관명	2021 ^f	2022 ^f
Barclays	6.1	4.7
BNP Paribas	6.0	4.9
BoA-ML	5.8	4.8
Citi	6.1	4.3
Goldman Sachs	6.3	4.7
JP Morgan	6.5	4.7
Nomura	6.2	4.5
Societe Generale	5.7	4.4
UBS	6.2	5.2
평균	6.1(-0.1)	4.7(-)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



* 전년 대비, 구매력평가(PPP) 기준. 붉은색, 파란색은 각각 전월 전망치 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괄호는 전월 전망치 대비 변화분(%p)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

	분기별				2021 ^f	2022 ^f
	21.3Q	21.4Q	22.1Q	22.2Q		
Barclays	6.5	6.0	3.5	3.0	6.1	4.1
BNP Paribas	-	-	-	-	6.9	4.7
BoA-ML	4.5	6.0	6.0	5.0	5.9	5.2
Citi	6.2	4.6	2.9	2.8	6.0	3.6
Goldman Sachs	5.5	6.5	4.5	3.5	6	4.5
JP Morgan	8.3	3.0	3.5	3.0	6.1	3.9
Nomura	6.2	4.9	4.8	3.9	6.0	4.4
Societe Generale	6.1	4.7	3.3	2.6	6.3	3.9
UBS	8.0	8.9	5.3	7.1	6.5	6.0
평균	6.4(-0.7)	5.6(0.3)	4.2(0.2)	3.9(0.2)	6.2(-0.2)	4.5(0.1)

* 분기별 전망은 전기대비 연율, 연도별 전망은 전년대비 기준. 붉은색, 파란색은 전월 전망치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괄호는 전월 전망치대비 변화분(%p)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

	분기별				2021 ^f	2022 ^f
	21.3Q	21.4Q	22.1Q	22.2Q		
Barclays	11.5	4.9	3.3	2.6	5.2	4.6
BNP Paribas	-	-	-	-	4.8	5.2
BoA-ML	8.1	4.4	2.7	2.1	4.2	3.5
Citi	8.8	4.6	4.0	3.5	4.6	4.5
Goldman Sachs	11	6	3.2	2.2	5.3	4.6
JP Morgan	10.5	4.0	6.0	3.5	5.0	5.2
Nomura	10.0	1.2	2.8	2.4	4.8	3.5
Societe Generale	9.3	5.3	3.0	2.6	4.3	4.1
UBS	10.1	7.4	5.4	3.0	5.1	5.3
평균	9.9(-0.2)	4.7(0)	3.8(0)	2.7(-0.1)	4.8(0)	4.5(0)

* 분기별 전망은 전기대비 연율, 연도별 전망은 전년대비 기준. 붉은색, 파란색은 전월 전망치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괄호는 전월 전망치대비 변화분(%p)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

	분기별				2021 ^f	2022 ^f
	21.3Q	21.4Q	22.1Q	22.2Q		
Barclays	4.6	4.7	5.6	4.6	8.2	5.5
BNP Paribas	-	-	-	-	8.7	5.3
BoA-ML	(2.5)	(7.8)	(6.5)	(6.8)	8.3	6.2
Citi	6.0	5.1	5.0	5.5	8.7	5.5
Goldman Sachs	5.1	4.1	5.2	5.2	8.2	5.6
JP Morgan	(0.2)	(7.8)	(6.1)	(5.2)	8.7	5.7
Nomura	5.1	4.4	5.0	4.9	8.2	5.1
Societe Generale	6.0	4.2	4.8	4.7	8.5	5.0
UBS	5.8	4.0	5.0	5.4	8.2	5.8
평균	5.4(-0.7)	4.4(-0.4)	5.1(-0.4)	5.1(-0.2)	8.4(-0.2)	5.5(-0.1)

* 분기별 전망은 전년동기대비, ()는 전기대비 연율. 평균은 전기비연율 값을 제외하고 계산. 연도별 전망은 전년대비 기준. 붉은색, 파란색은 전월 전망치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평균의 괄호는 전월 전망치대비 변화분(%p)

〈일본 경제성장률 전망〉

	분기별				2021 ^f	2022 ^f
	21.3Q	21.4Q	22.1Q	22.2Q		
Barclays	1.8	8.8	1.5	0.9	2.6	2.6
BNP Paribas					2.2	3.3
BoA-ML	-0.4	3.1	6.2	7.4	2.1	4.2
Citi	1.1	5.0	5.4	4.5	2.2	3.7
Goldman Sachs	3.9	8.4	2.3	1.7	2.9	3.2
JP Morgan	2.0	8.5	5.0	1.0	2.7	3.5
Nomura	0.7	9.3	6.4	3.3	2.5	4.6
Societe Generale	4.7	3.4	3.9	3.7	2.0	3.3
UBS	2.7	4.9	4.4	2.1	2.5	3.0
평균	2.1(-3.2)	6.4(-2.1)	4.4(1.3)	3.1(1.1)	2.4(-0.1)	3.5(-0.1)

* 분기별 전망은 전기대비 연율, 연도별 전망은 전년대비 기준. 붉은색, 파란색은 전월 전망치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괄호는 전월 전망치대비 변화분(%p)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보고서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국제금융센터는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53 혹은 shhong@kcif.or.kr, 홈페이지: www.kcif.or.kr